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인기'



나주 불회사의 '비로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직접 차를 만들고 있다.

야생차로 구중구포 전통수제차를 만드는 '비로차 만들기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비로차 만들기'는 지난해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나주 불회사(주지 보인)가 올해 처음 선보인 프로그램. 불회사는 사찰에 머물면서 직접 야생 차잎을 따고, 아홉번 뒤고 비비는 전통 제

다법으로 차를 만들어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회사는 20여명 규모의 제다실과 포장실을 만들고 20여명이 제다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첫 공고이후 매 회 정원을 훨씬 넘겨 그동안 1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5월 23~24일 서울 신세계 백화점 문화교실 수강생 40여명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김정선(46)씨는 "우리차를 마셔보는 했지만 차나무를 처음 봤고,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봤다"며 "앞으로는 더욱 차 맛을 음미하며 마실 수 있겠다"고 템플스테이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나주 불회사, 비로차 만들기 4월이후 100여명 참가 성황

이처럼 참가자들의 입소문으로 희망자가 몰려다 불회사는 첫날 참가가 끝나는 6월 중순이후에는 '죽순따기 템플스테이'를 준비 중이다.

불회사 김경민 사무장은 "참가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아쉽다"며 "내년에는 시설을 정비해 더 많은 이들이 제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61)337-3440

글·사진/나주=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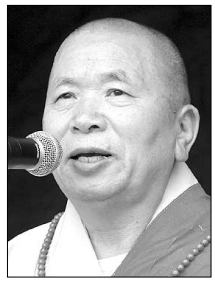
"참여와 변화로 희망주는 중무행정"

금명 스님, 태고종 13대 광주·전남 중무원장 취임

제13대 태고종 광주·전남 중무원장 금명 스님(사진) 취임법회가 5월 25일 광주 운천사에서 봉행됐다.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광주사암연 회장 혜향, 동구불교협의회장 지각, 광산구불교협의회장 성오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정동채, 양형일 의원 등 지역

기관장, 재가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인 중무원장 금명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도화합을 기치로 참여와 변화를 통해 희망을 제시하는 중무행정을 펼쳐겠다"며 "중무행정 전산화, 정토도량 발전, 생활불교운동 등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총림인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맥이 전해진 불국정토"라며 "신인 중무원장의 원력이 원만성취 될 수 있도록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송광사 사천왕상 종합 연구서 출간

6월17일 '한국학연구와 사지' 학술세미나도 열어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腹藏)조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자료가 책으로 출간됐다. 한성대 강순애 교수팀이 1년 동안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고증은 물론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한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가 그것이다.

이 자료집은 송광사 사천왕상의 제조명과 복원, 발굴된 복장물의 이론적 연구 및 실사, 도판작업 등을 통해 불교문화유산

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집은 발굴물인 <법화현전회고통금신조> 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송광사 소장불서에 보존에 대한 연구, <묘법연화경현의> <법화문구기>의 각수고,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송광사 사천왕상의 제작기술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한편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정 스



님)은 6월 17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한국학연구와 사지(寺誌)'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광사 사고(史庫)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세미나는 송광사 사고의 편찬과정과 자료가치(조명제-송광사 박물관), 고려 조선시대 선종의 전개와 송광사 법종(法衆)의 추이(원경 스님-송광사), 송광사사고 선행부 자료의 내용과 가치(정용범-송광사 박물관)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준엽·노병철 기자

영국사, 분청사기등 유물출토

충북 영동 영국사(주지 청원)에서 분청사기, 와관, 이항기와 등 와전류와 문고리 등 철제류를 포함 다량의 유물이 출토됐다.

영국사 복원을 위한 주변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는 충청대 조사단은 5월 21일 2차 발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금동불상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된 이후 2차 조사에서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영국사의 역사적 중요성이 거듭 확인된 셈"이라며 종합 복원불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영국사는 1차 조사 건물지와 2차 조사 건물지 등 주변 발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복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창작 국악극 '구지이야기' 공연 정음 정도사, 6월 3일 문화마당서

정음 정도사(주지 원공)가 6월 3일 오후 7시 경내에 북실무대를 설치하고 정도문화마당을 펼친다.

이번 공연에는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타루'가 출연해 창작 국악극 '구지이야기'를 공연하고 판소리 논대목을 소개한다.

타루가 공연하는 '구지이야기'는 지구와 정반대의 성(性)구조를 지니고있는 붉은 별 구지에 사는 철손이가 지구에서 자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여성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국악극이다. (063)537-9222 이준엽 기자

법주사 '영한대역불교성전' 보시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에

특1급 호텔인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의 객실에 <영한대역불교성전>이 비치된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5월 25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로비에서 호텔 객실에 비치될 영한대역불교성전 320권을 호텔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법주사 총무국장 각밀 스님과 포교국장 각우 스님, 안석찬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총지배인, 임은정 홍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달된 <영한대역불교성전>은 호 텔투숙객인 내외국인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bs.co.kr



생활 속 불교문화

순창고추장의 원류 만일사

무학대사·이성계가 발굴 '천하일미'

고추장은 지역마다 제조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예로부터 순창에서 만들어진 것을 으뜸으로 쳤다. 순창고추장은 달거나 맵거나 짜지 않으며 담백하고 감칠맛이 입안에 남아, 조선시대에는 왕에게 진상했던 식품이다.

임금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랑받은 순창고추장의 유래는 회문산 만일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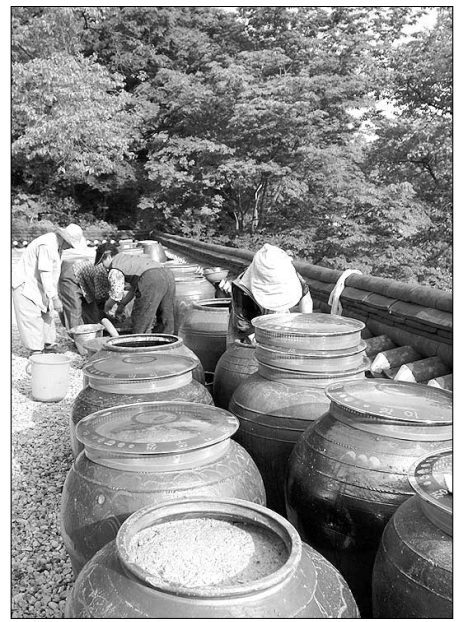
"고려 국운이 쇠퇴하자 이성계가 무학 대사와 조선 건국의 뜻을 품고 팔도 명산대찰을 찾아 기도를 했다. 그런데 팔도 산신령들이 모두 건국을 허락하는데 유독 회문산 산신령만이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회문산 산신령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다. 백일 되던 날 밤, 마침내 꿈에 산신령이 현신하여 '천일향을 시주하고, 백성을 다스리지 말고 섬기도록 하라'고 했다.

하루는 마을에서 점심을 먹는데 고추장 맛이 일품이었다. 그 후 이성계의 법상에는 반드시 순창고추장이 올랐다.

훗날 왕자의 난으로 왕위를 물려준 이성계는 왕권을 얻었으나 평탄하지 못한 신세를 한탄하다가 회문산 산신령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혹여 정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하여 회문산 사찰에 구천일향을 시주해 만일향을 채우고 합축으로 떠났다. 이 절은 이때부터 '만일사'로 불리게 됐다." <구비문학/설화>

한국전쟁 당시 회문산에 복한의 남부군 총사령부가 자리했다. 만일사도 집중포화로 모든 것이 소실됐다. '이성계와 고추장'에 얽힌 사료도 사라지고, 훼손된 중수비만 남았다. 순창군은 비바람에 마모된 비문에서 '태조대왕'과 '무학'이란 단어를 찾았고, '순창고추장' 설화의 근거로 내세웠다.

흔히 고추는 임진란 이후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이라 한다. 그렇지만 순



만일사 스님과 신도들이 담을 뜨는 모습.

회문산 8부능선에 위치

물·바람·햇볕 최적

창에서는 '만일사 설화'를 근거로 고려 때부터 고추장을 담갔다고 주장한다. 최근 '만일사 중창 사적기' 찾기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최근 순창군은 장류연구회와 보급에 힘쓰고 있다. 본래 순창은 옥천(玉川) 고을이었다. 이름만큼이나 물맛이 일품이다. 또한 서해안 염분과 지리산 바람이 만나는 지점으로 발효균이 활동하는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에서 순창사람이 고추장을 담가도 제 맛이 나지 않는 이유이다. 순창에서도 회문산 8부능선에 자리한 만일사에서 담근 고추장을 최상품으로 친다. 비법은 물, 바람, 햇볕의 조화이다.

급년 들어 만일사도 원장과 고추장을 담갔다. 무더위가 찾아오는 6-7월경이면 제 맛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내친김에 내년에는 '고추장 담그기 템플스테이'도 구성하고 있다. (063)663-5283

순창=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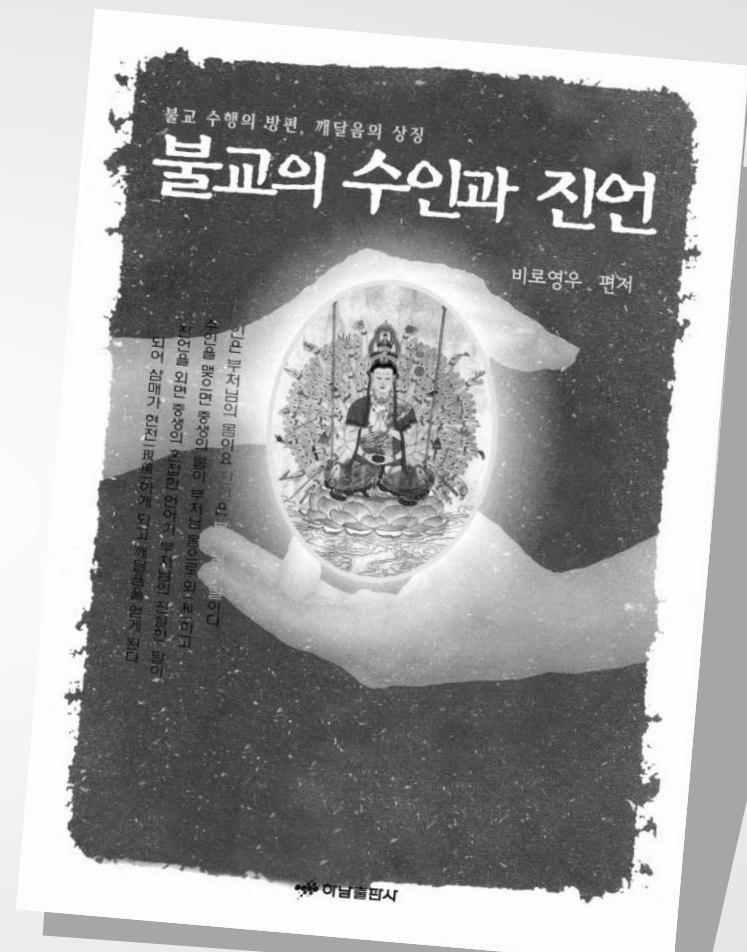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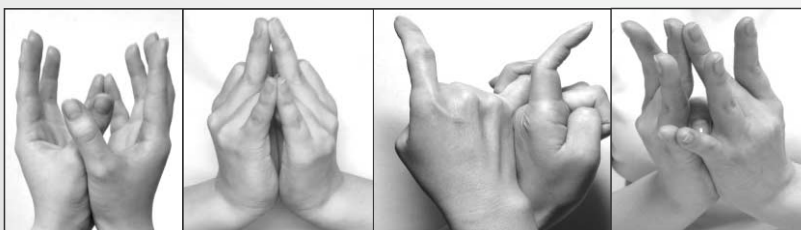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수인은 부처님의 몸이요 진언은 부처님의 말이다

밀교에 밀(密)은 비밀스러움을 뜻하는데 중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법이라는 뜻에 기인한다.

이 밀(密)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이다. 이를 함께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삼밀을 구유(具)하고 수행하면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있고 큰 깨달음에 들어 삼명육통(三明六通)에 자재한 불보살이 된다.

삼밀 가운데 첫 번째인 신밀을 다른 말로 수인(手印)이라 하고 범어로는 무드라(mudra)이다. 두 번째는 구밀이라 하고 다른 말로 진언(眞言) 또는 다라니(dharani)라고 부르며, 범어로는 만트라(mhanttra)라고 한다. 세 번째인 의밀(意密)은 참된 성품(性品)으로부터 나오는 삼매(三昧)의 형상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교화방편의 삼매를 상념으로 지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소개하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신밀과 구밀인 수인과 진언이다.



비로영우 스님 편저 / 사륙배판 / 382쪽 / 값20,000원